

시적 비유와 상징

사내가 달걀을 하나 건넨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진눈깨비를 만날 것이다.
스팀 장치가 엉망인 까닭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몇이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
실내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보죠.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끝을 다친 듯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죠. 서울 생활이란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조치원도 꽤 큰 도회지 아닙니까?
서울은 내 동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한 것은 당연하죠.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 나무들.
한때 새들을 날려보냈던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
어느 계절까지 힘겹게 손을 들고 있는가.
간이역에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
소스라쳐 깨어나는 사람들. 소지품마냥 펼쳐보이는
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
좀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발 밑에는 몸쓸 꿈들이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주니까요. 덕분에 저는
도둑질 말고는 다 해보았답니다.

조치원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졸음은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한들 어떠랴. 누구에게나 겨울을 위하여
한 개썰의 외투는 갖고 있는 것.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
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번 열어보인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마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친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조치원이라 쓴 네온 간판 밑을 사내가 통과하고 있다.
나는 그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

은유적인 사유 체계로 사고하는 일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 <엄마 걱정>

겨울이 되면, 어른들은
얼어버린 냇물 위에서 돼지를 잡았다.

우리 동네에는
바다까지 이어지는 도마가 있었다.
얼음 도마는 피를 마시지 않았다.
얼어붙은 피 거품이 썰매에 으깨어졌다.
버들강아지는 자꾸 뭐라고 쓰고 싶어서
흔들흔들 핏물을 찍어 올렸다.
얼음 도마 밑에는 물고기들이 겨울을
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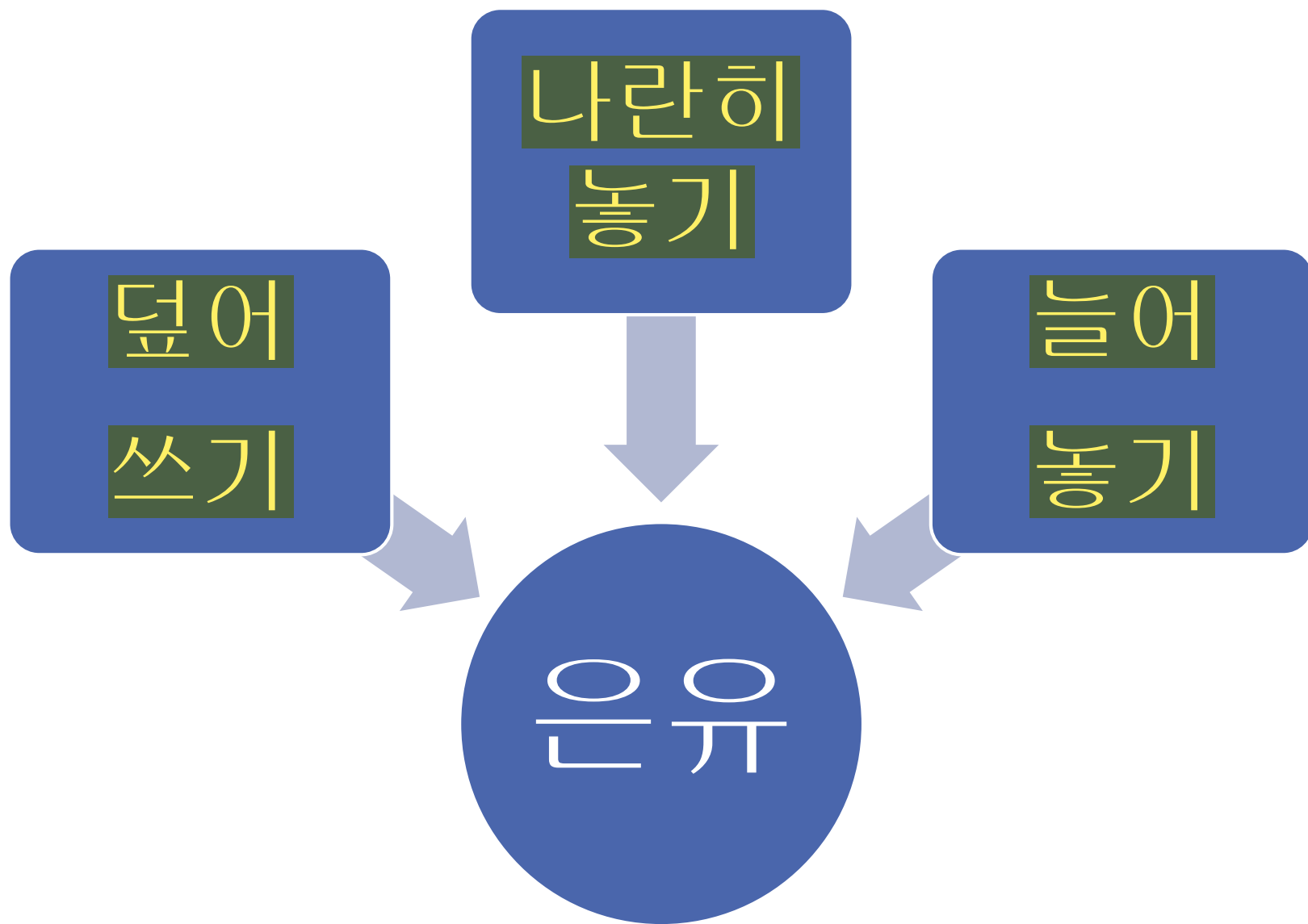
(바닷가에서 노을을 볼 때마다 나는 생
각한다.

핏물은 녹아내려 서녘 하늘이 되었는데
비명은 다들 어디로 갔나?)

얼음 도마 위에 누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돼지가 있었다.
일생 비명만 단련시켜 온 목숨이 있었
다.

세상에,
산꼭대기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도마
가 있었다.

이정록, <얼음 도마>



안과에서

김춘수

마당에는 덕석이 깔려 있고
감나무가 잎을 드리우고 있더라.
공중(空中)을
풍뎅이가 한 마리 날고 있더라.
해가 지고 언덕이 있고
구름이 있고,
피라미 새끼들이
남강(南江) 상류(上流)를 내려오고 있더라.

흙담벽에 뱃이 따사하니
아이들은 물코를 흘리며 무감자를 먹었다

돌덜구에 천상수(天上水)가 차게
복숭아나무에 시라리타래가 말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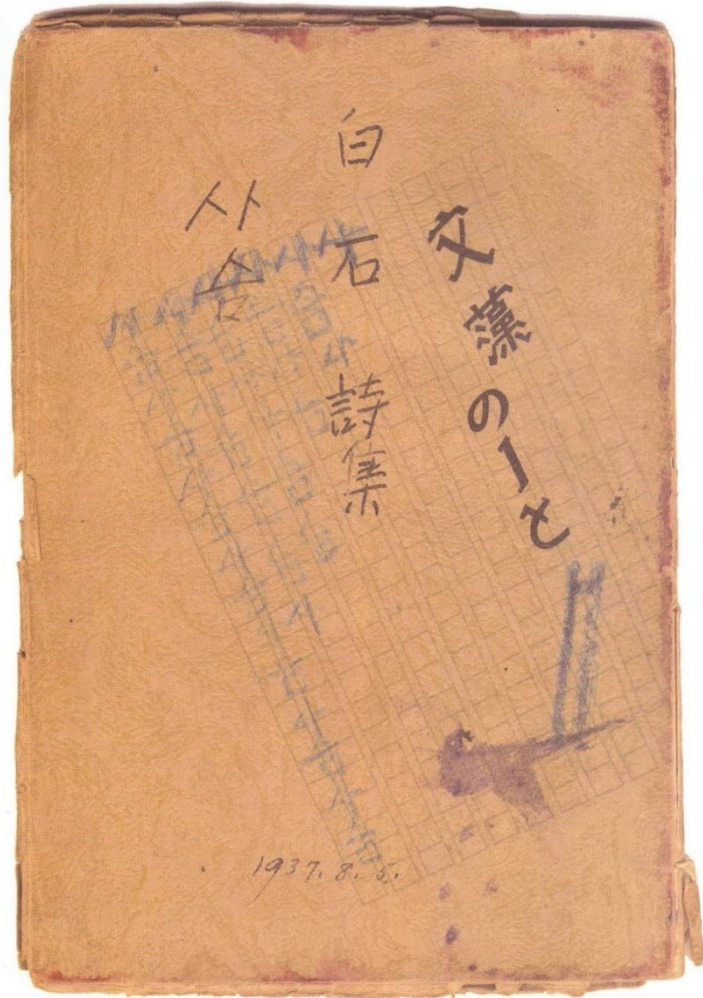
- 백석, <初冬日>

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
몽기몽기 웨인내굴 대낮에솟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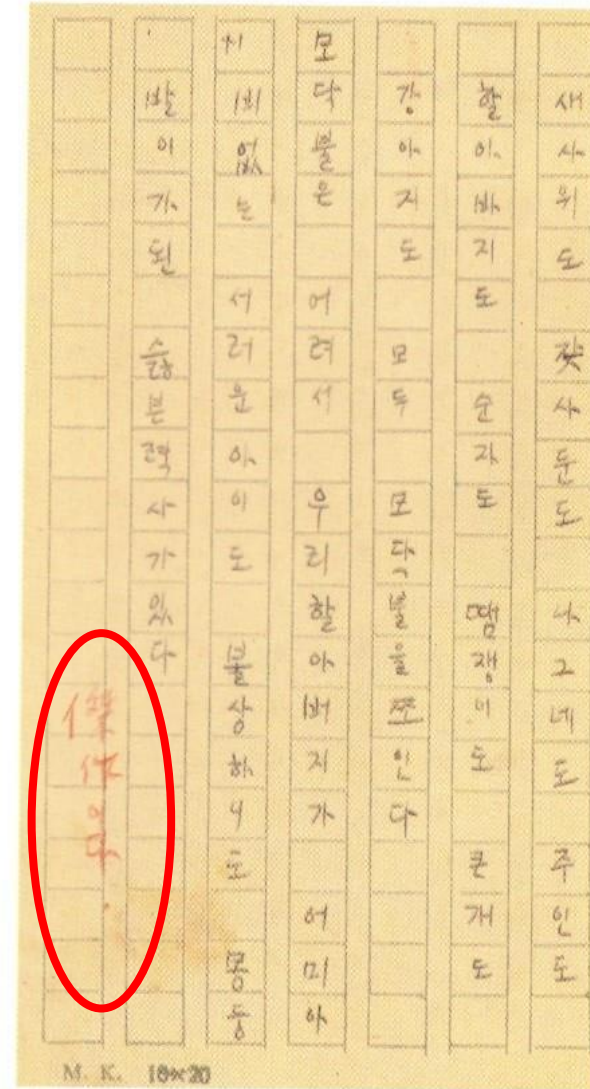
감자를 굽는게지. 총각애들이
깜박깜박 검은눈이 뭉여앉아서,
입술이 꺼머케 술을바르고,
넋 이야기 한커리에 감자하나식,

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
살낭살낭 솟아나네 감자굽는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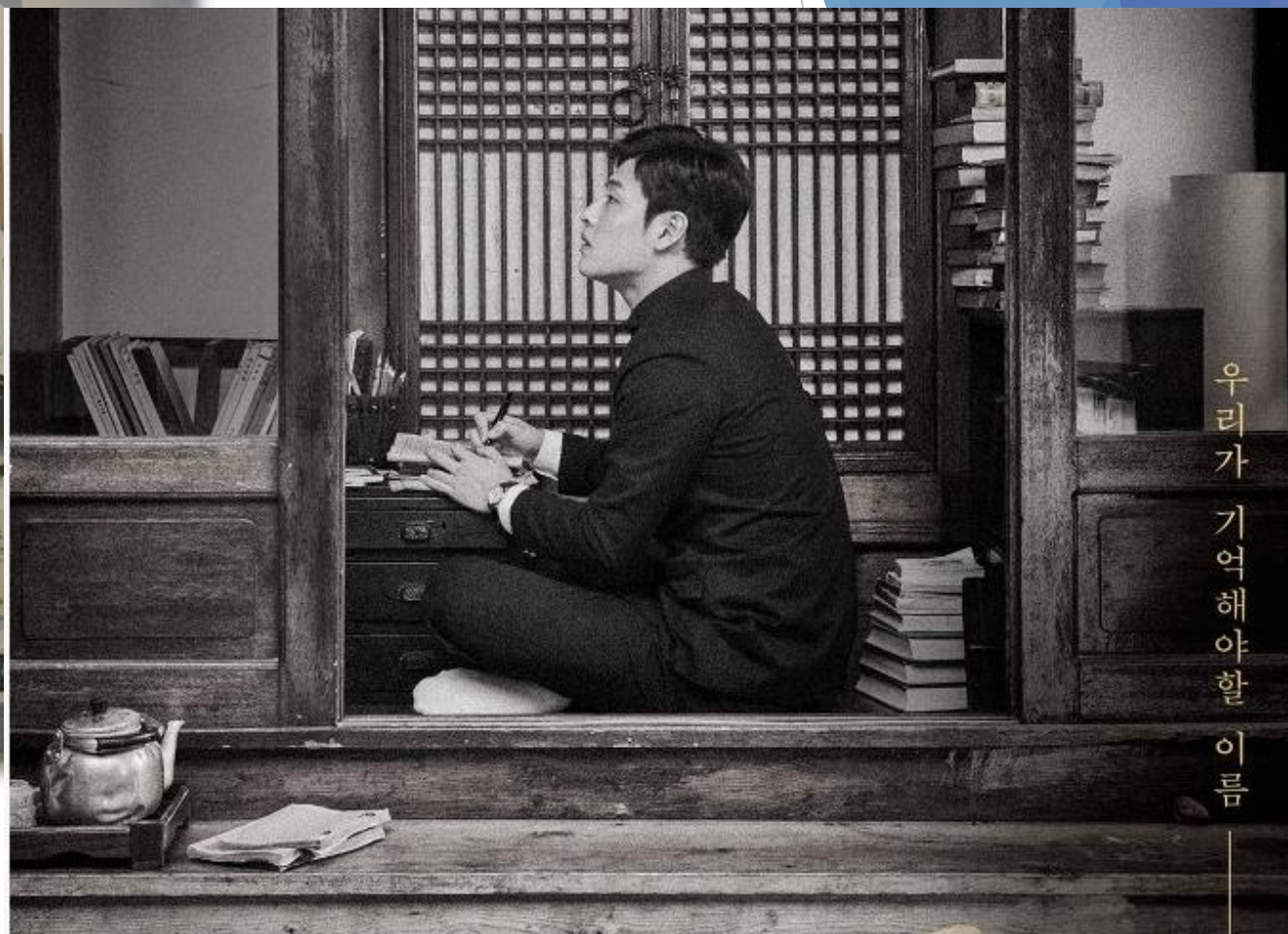
윤동주, <굴뚝>



표지. 뒷 부분에 검정 잉크로 〈白石 詩集/ 사슴〉, 밑 부분에 〈1937. 8. 3.〉라고 써어 있음



윤동주가 필사한 시집 《사슴》의 표지와 필사한 <모닥불>의 일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윤동주가 계속 가지고 와 서울에 둘 정도로 애착을 둔 시집은 **백석**의 《사슴》과 《정지용 시집》, 《영랑 시집》이었다. **이상**의 작품 역시 따로 스크랩했었다.

북치는 소년

김종삼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카드처럼

어린 양(羊)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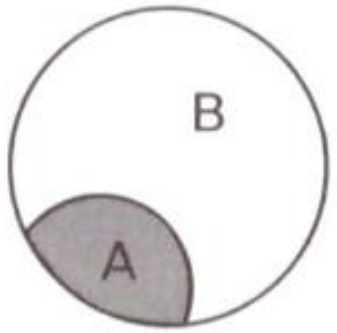
은유 : 수평적(대상과 대상)

제유 : 수직적(부분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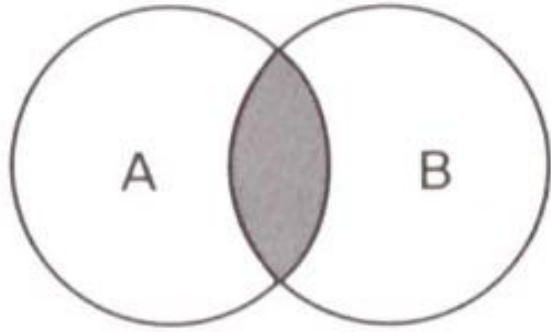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환유 : 은유와 제유의 결합(인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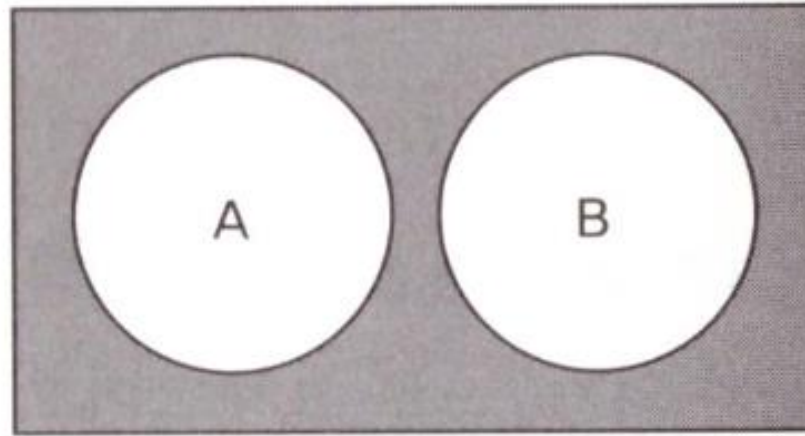
경제성, 외적 구조성



제유



은유



환유

미시령 노을

이성선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내 몸에 우주는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흰 구름

나희덕

사람들은 구내식당에 줄을 서서
자신의 욕망만큼 주문한다
아니, 일용할 욕망이 허락되는 만큼

공기밥 400원 아욱국 200원 제육볶음
1000원 시금 치나물 400원 해파리냉채
600원 김치찌개 1000원 병어구이
1000원

수저를 드는 순간
내 앞에서 수저를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손,
나는 저 손을 알고 있다
조금 전까지 거리에서 광고지를
나누어주던 손

버려지기 위해 쌓인 광고지와
그것을 다 버려야만 밥을 벌 수 있는
손
그 손이 하염없이 먹고 있는

한 그릇 맨밥

얼어터진 손등이 나르고 있는 흰
밥알들은
부르튼 입술 사이에서 구름처럼
뭉쳐졌다 풀어지고 뭉쳐졌다 풀어지고
밥알을 씹는 어두운 눈동자 속으로
잠시 휘돌다 사라지는
흰 구름 한점

아스팔트

이성부

아스팔트는 핏줄을 가지고 있다.
쓰러져 무엇을 토해내는 아스팔트는
가장 굳센 핏줄을 가지고 있다.

아스팔트의 부릅뜬 눈, 붉디붉은 입술, 팔뚝 휘젓는
끈기의 힘, 꿈틀거리고 고요하고 다시 소리치는 동체,
대지를 걷어차고는 숨죽여 기다리는 두 다리, 불덩이인 온
몸, 아스팔트는 아직 굳센 핏줄을 가지고 있다.
아스팔트는 아직 우리들의 편이다.

아스팔트는 넉넉하게도 버티고 있다.
쓰러져 무엇을 자꾸 토해내는 아스팔트는
아직도 아직도 버티고 있다.

아스팔트는 너무 강해서
결코 핏줄을 터뜨리는 법이 없다.
아스팔트는 넉넉하게도 터지는 법이 없다

올해같이 오는 눈도 없었고 올해같이 추운 겨울도 없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계집애 어린애까지가
다— 기계들을 내던지고 일어나지 않았니

동해바다를 거쳐오는 모진 바람, 회사의 펌푸, 징 박은 구두발, 휘몰아치는 눈보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20일이나 곳곳이 뺏대오지를 않았니
해고가 다 무어야 끌려가는 게 무어야 그냥 그대로 황소같이 뺏대고 나가자
보아라! 이 추운 날, 이 바람 부는 날! 비누 껌 짝 짝 싹싹을 싹고
우리들의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구루마를 끌고 나가는 저 어린 행상대의 소년을.....
그리고 기숙사란 문 잠근 방에서 밥도 안먹고 이불도 못 덮고 이것을 이것을 이기려고
울고 부르짖는 너희들의 계집애들을.....

임화, <양말 속의 편지> 부분

말놀이 애드리브
-모스크 바에는 빅토르 최가 있다

오은

당신이 슬프고 맥주를 좋아한다면.....

모스크 바(bar)에 가자 **모스크 바**에 가면 당대 최고의 가수 **빅토르 최**를 만날 수 있다 **제내 바**의 가수는 항상 **하이드**, 그녀는 요들송만 부른다 **바스샤 바**의 술값은 너무 비싸 위스키 한 잔에 **이스탄 불**(dollar)한다 이쯤 되면 우리가 **모스크 바**에 가는 것은 당연해진다 **모스크 바**에 가기 위해선 우선 차가 있어야 한다 **카사블랑 카**(car)나 **알래스 카**보다는 **니스** 칠이 되어 있는 **스리랑 카**를 추천한다 **스리랑 카**를 타고 **오슬 로**(path)를 따라가다 보면 **암스테르 담**(fence)이 나온다 거기서 **이사 벨**(bell)을 누르면 십중팔구 세 명의 **브레 멘**(men)이 나올 것이다. **모나 코**(nose)를 가진 이는 성질이 험하니 피하라 **퀘 백**(bag)을 메고 있는 **골 빈**(empty) 남자는 실권이 없다 남은 남자 하나는 분명 **네 팔**(arms)을 부지런히 **카트 만두**를 집어먹고 있을 것이다 미리 마련한 **펠로폰네 소스**(sauce)를 만두 위에 골고루 뿌려 주어라 레바 논에서 재배한 **예테 보리**(barley)음료를 줘도 좋다 흥이 난 남자가 **헬싱 키**(key)를 건네주면 이미 반쯤은 성공한 셈이다 **헬싱 키**로 담에 나 있는 작은 문을 열면 **케임 브리지**(bridge) 너머로 **카이 로**가 보일 것이다 장마기간이라 **바 레인**(rain)이나 **나이로 비**(rain)가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닥에 **싱가 포르말린**이 흐르고 있으니 걸어갈 수는 없다 **케임 브리지** 입구에서 **로 마**(horse)나 **뮌 헨**(hen)을 빌려 타도록 하자 욕쟁이 할머니 한 분이 **블라디보스 토크**(talk)쇼를 보며 **말리지** 않은 **홍콩**(red bean)에 **에덤 버러**(butter)를 발라 먹고 있을 것이다 고작 **프놈 펜**(pen) 몇 자루나 **몬테 비데오**(bideo) 한 편 가지고 할머니를 꽤긴 힘들다 할머니가 당신 면전에 정신없이 **미얀마** 같은 **뉴**(new) 욕을 퍼붓는 **사이**, 판을 벌여라 **베이 징**(gong)을 쳐대거나 미친 듯이 **시카 고**(drum)을 두드리란 말이다 놀란 노인네는 필경 군말 없이 그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참, **로 마**나 **뮌 헨**은 잘 보고

타야지 그냥 **자카르** 타면 후회하기 십상이다 어떤 것들을 **부다 페스트**(pest)에 걸려 제대로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이 로**를 반쯤 지날 무렵, **프라 하**(canal) 물을 대는 **안타나나리 보**(reservoir)가 나올 것이다 커다란 몸집의 **팔라 우**(cow)나 **바 하마**(hippo)가 **통 가**(song)를 부르며 **알 제리**(jelly)를 씹어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곳을 순찰하는 **오만한 예 맨**(men)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카 타르**(tar)를 사도록 하자 **카 타르**는 거기서 **사모아**야지 다른 데서 사려면 **카 불**이나 **파푸아뉴 기니**(guinea)를 줘야 한다 이제 **카이로** 고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동굴만 지나면 된다 동굴 안으로 빛이 **항시 드니** 그리 스릴 있지는 않다 동굴 밖 **모스크 바** 앞에는 빅토르 최를 보러온 **파리** 떼들이 **부산**을 떨고 있을 것이다. 네 순서가 되면 얼굴을 덮은 **피지**(sebum)를 조금 짜주건 말초신경에 있는 **부뤼 셀**(cell)을 제시하라 그것이 오늘밤 네 아이디어다 **모스크 바**에 들어서면 짙은 담배연기 사이로 빅토르 최가 얼핏 보일 것이다 **노르 웨이**터에게 아까 사둔 **카 타르**를 건네주면 흔쾌히 담배를 말아줄 것이다 맥주가 싫다면 **호주**나 **청주**, 온더록스 **위스키**를 마셔도 좋다 모스크 바에서 물건은 어차피 **파나 마나**다 **밀포드 사운드**(sound)를 들려드리죠 젊은이들의 동경을 한 몸에 받는 빅토르 최가 말한다 **데리카토**(delicato)로 연주하겠습니다 힘을 쫓는 자들에겐 그저 **비아그라**나 **다오** 대신 우리에게겐 자유를 주오.....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이다. 이 때 보조관념은 생략된 원관념을 포함하게 된다. 은유의 비교 가능성이 체계 전체를 통괄하는 기능을 할 때 그것은 상징으로 전환된다. 상징은 은유에서 시작했으나, **은유적인 매개를 끊고 그 자체로 독립하는 표상**이다. 어떤 언술이 지시성의 차원에서 세계의 실질성을 시에 끌고 오는 것과 같이 상징은 원관념을 지움으로써 은유 너머의 세계를 지향하게 한다.

상징은 논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규정된다. 시인의 삶과 작품 형식 사이의 관계, 기호 일반에 이르는 용어까지 모두 상징에 포괄될 수 있다. 상징의 유형화는 필자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나, 유형화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창조성'의 유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대상과 전언에 얼마나 생산적인 효과를 낳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못한 상징은 관습적이거나 자의적인 상징이 되고 만다.

풍장 1

황동규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뜸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

툭 튀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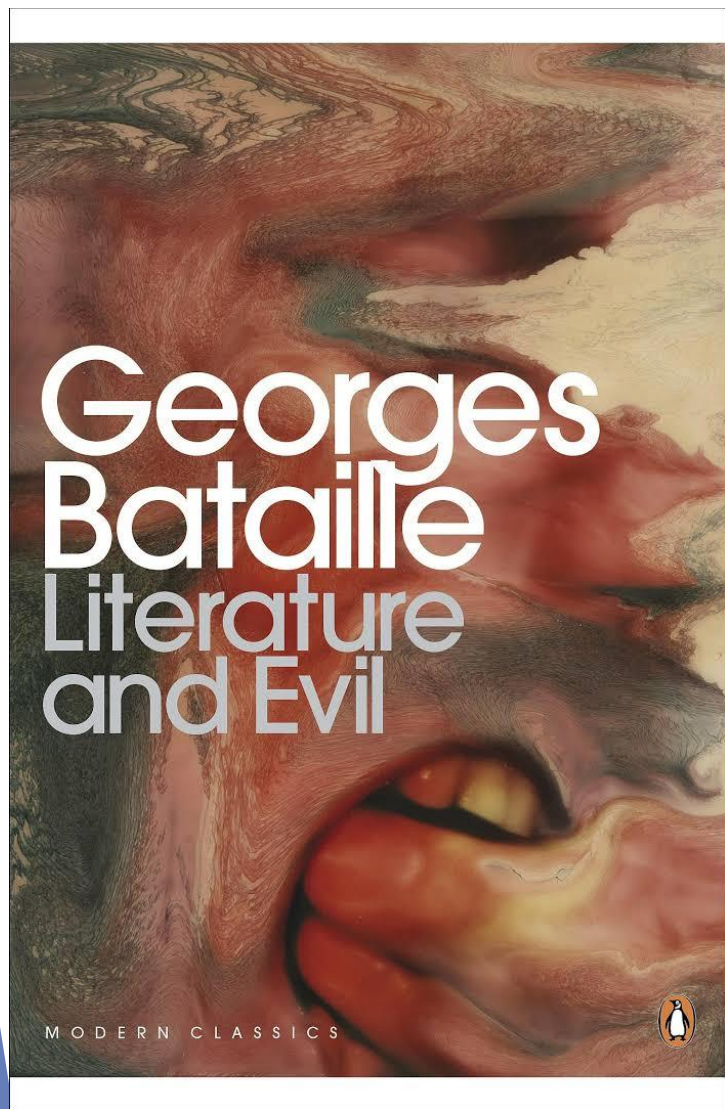
바람과 놀게 해다오.

VOGUE야 넌 잡지가 아냐
섹스도 아냐 유물론도 아냐 선망조차도
아냐 — 선망이란 어지간히 따라갈 가망성이 있는
상대자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선망도 아냐

마룻바닥에 갇힌 비닐 장판에 구공탄을 떨어뜨려
탄 자국 내 구두에 묻은 흙 변두리의 진흙
그런 가슴의 죽음의 표식만을 지켜온
밑바닥만을 보아온 빈곤에 마비된 눈에
하늘을 가리켜주는 잡지
VOGUE야

신성을 지키는 시인의 자리 위에 또 하나
넓은 자리가 있었던 것을 자식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죄 — 그 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몰랐다
VOGUE야 너의 세계에 스크린을 친 죄
아이들의 눈을 막은 죄 — 그 죄의 양깊음
VOGUE야

그리고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안한다
안하기로 했다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에게도 엄마에게도 모든
아버지보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자신에게도



알레고리란 무엇인가?

- ▶ 알레고리는 표면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가 이면적으로 다른 의미를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상징이 원관념을 삭제한 보조관념들이 총체화 혹은 체계화될 때 발생한다면, **알레고리는 하나의 체계(알레고리 텍스트)가 다른 체계(원관념 역할을 하는 텍스트)를 지시(비교)할 때 출현한다.**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여럿 대 하나이지만, 알레고리는 하나 대 하나다. **알레고리 텍스트 바깥의 의미(원관념)는 대개 사회, 역사적 교훈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알레고리는 환유와 마찬가지로 관습적이고, 일부 열등하고 차원이 낮은 수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징과 알레고리는 서로의 역상(逆像)이자 역행(逆行)의 사유 운동일 뿐, 우등과 열등의 관계는 아니다.
- ▶ 상징이 전체적이고 이상적인 근원성을 추구한다면, **알레고리는 파편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성을 추구한다.** 벤야민은 바로크 비극을 분석하며 알레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알레고리는 완전성, 아름다움으로서의 상징과 대립되는 미완성, 추로서의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황현산 역시 상징과 알레고리 사이의 대립을 신화와 현실(역사)의 대립으로 파악한다. 관습적이고 죽은 은유에 기반을 둔 알레고리를 저급한 수사라 부를 수도 있으나, 하나의 텍스트(하나의 담론으로 이루어진 우주)가 또 다른 텍스트로 전환되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의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일찍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
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힌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최승자, <일찍이 나는>

1980년대의 ‘광주’



참고문헌

백석, 《원본 백석 시집》, 이지나 편, 깊은샘, 2006.

김수영, 《김수영 전집》, 민음사, 2003.

오은, 《호텔 타셀의 돼지들》, 민음사, 2012.

윤동주,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왕신영 외 편, 민음사, 2002.

박현수, <수사학의 3분법적 범주>, 《한국근대문학연구》17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박진.김행숙, 《문학의 새로운 이해》, 민음사, 2013.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